

# ‘설전’ 1시간 30분... 더 꼬인 대치 정국

■ 박대통령-여야 대표 3자회담 뒤편 남겼다

### 국정원 대선 개입·채동욱 사태 ‘치고 받기’ 민주 장외투쟁...정기국회 파행 심화될 듯

대치 정국을 풀어낼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 간 3자회담이 16일 오후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날 3자회담은 국회 정상화로 민생 법안 통과에 주력하자고 주장해온 박 대통령 및 황 대표의 입장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및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사과를 주장해온 김 대표 간 첨예한 설전이 맞서며 팽팽한 긴장모드를 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3자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그 정도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기국회 파행 등 여야의 대치 정국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되고 있다”며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어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라는 국민 약속이 허언이 아님을 말해야 한다”며 “서민들의 유리 지갑을 여는 세법개정안과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 관련 책임자 해임과 대선 개입 재판 관련 시도 중단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회담이 됐으면 한다”며 “여야가 안보와 민생에 관한 한 정쟁을 종결하고 국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왼쪽),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3자 회담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3자 회담에 앞서 박 대통령은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러시아·베트남 순방 결과를 설명한 자리 말미에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함께 노력해서 고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3자 회담을 통해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추석 때 국민이 민생에 대한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자신의 순방 때 여야 의원들이 협업체를 꾸려 동행해달라는 제안을 전달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김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제안서’와 ‘국정원법 개혁 추진방안’ 등 2건의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통제 강화 ▲기획조정원의 국가 안전보장회의(NSC) 이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제안서에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과거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국정원 개혁 내용과 방첩파트로 분리하는 것과 함께 ▲수사권 이관 ▲예산 등 국정원에 대한

## 박지원, 광상도-국정원 2차장 ‘채동욱 사찰說’ 제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광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 간부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을 진행해오다 지난달 초 몰려나면서 ‘사찰 파일’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넘겨줬으며, 8월 한 달간 ‘사찰’이 비밀리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6일 야당 단독으로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그 전부터 광 전 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 총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퍼져 있었다”면서 이같이 폭로했다.

박 의원은 “광 전 수석은 정기관 인사개입이 포착돼 해임당하자 이종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채 총장의 사찰자료 파일을 넘겨줬다고 한다”며 “본격적으로 8월 한 달간 채 총장을 사찰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이 비서관과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단물만 연락하면서 유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이 비서관은 김 부장에게 ‘채 총장이 곧 날아간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준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배후 의혹을 낱알이 밝히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 사건과 관련,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제출된 자격심사안을 윤리자문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선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 제명안을 병합심사할지가 최대 관심사였으나 여야는 공방 끝에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상정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자격심사 대상인 김재연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 출석,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기 때문에 본인의 자격심사안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도 8개 현서 수산물 8000t 수입”

### 임내현 의원 주장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16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총 8000여톤의 수산물이 국내로 수입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의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입수산물 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부터 정부의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진 지난 9일까지 총 8000여톤의 수산물이 수입됐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특히 후쿠시마현과 인접한 미야기현에서 수입된 수산물 양

은 2011년 11톤에서 2012년 1844톤으로 167배나 증가하는 등 방사능 오염 우려가 큰 후쿠시마현 인접 지역 수산물이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후쿠시마 현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진 올해 들어서도 후쿠시마현 인근 5개 현에서 2800여톤의 수산물이 수입됐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입금지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 확대를 위한 재검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軍·민간 공항 연계 이전 검토 하겠다”

### 강운태 광주시장

강운태 광주시장이 군사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을 연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가 그동안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별개라고 선을 그어 왔던 점을 감안하면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강 시장은 16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달 시행되면 군 공항 이전문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가 다뤄야 할 제1의 목표는 군 공항 이전”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민간공항까지 함께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 형편으로 볼 때 군 공항이 이전하더라도 민간공항은 존치하는 게 맞고

광주시민들의 66% 이상이 이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며 “하지만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한꺼번에 나갈 수밖에 없다면 대응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종적으로는 시민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라며 “관련부서에서는 ‘군 공항 이전에 불가피하다면 민간항공까지도 같이 나갈 수도 있다’는 자세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광주시가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분리해 복수공항 체제 주장을 고수해 왔던 것과는 상당히 달라진 입장이다.

강 시장은 이전 방안과 관련해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대상 지역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고 그 인센티브는 국방부가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막대한 인센티브를 내걸었듯이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희기자 redplane@kwangju.co.kr

## “光銀 민영화 긴밀 협조 지역 경제권 편입 노력”

### 박준영 전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는 16일 “광주은행이 민영화되면 지역 경제권에 편입되는 게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도가 자본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토론회에서 ‘지역 연구 은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지사는 “투자유치 등을 통해 지역 산업이 발전되는 지역 연구 은행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영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점을 감안, 도가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상의해 광주은행이 광주·전남 지역

경제권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전남도가 광주은행 민영화 과정에 자본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영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지자체 등의 참여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이날 박 지사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다시는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은 한민족이 대결에서 이제 통일로 가는 작은 시가지 될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은 매년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경희기자 kroh@kwangju.co.kr

www.kjhr.com

# 즐거운 한가위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님들의 가정에도 늘 한가위처럼 풍성함이 가득하시길  
국제보청기 임직원 일동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청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국제보청기

· 본 점 : 062-227-9940

· 목포점 : 061-262-9200

· 서울점 : 02-765-9940

· 총장점 : 062-227-9970

· 장흥점 : 080-222-9975

· 순천점 : 061-752-9940